

Dubai유, 45달러 유지 안간힘!

5월10일 45.77달러로 0.32달러 상승 ... WTI는 51.87달러 보합

5월10일 국제유가는 미국 ConocoPhillips의 정유공장 생산중단과 휘발유 가격상승으로 장중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석유 재고증가 예상과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NYMEX의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04달러 상승한 52.07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14달러 상승한 51.43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Dubai 현물유가도 0.32달러 상승한 45.77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5/05	5/06	5/09	5/10
현 물	Dubai	46.12	45.90	45.45	45.77
	Brent	47.52	48.29	47.36	48.71
	WTI	50.92	51.18	51.86	51.87
	Oman	47.33	47.13	46.68	46.99
NYMEX 선물(WTI)	Tapis	53.86	53.78	53.29	53.38
	6월	50.83	50.96	52.03	52.07
	7월	52.49	52.67	53.38	53.49
환율(원/달러)		-	1009.10	1010.50	1009.7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미국 루이지애나 Belle Chasse 소재 ConocoPhillips의 석유정제 25만b/d 설비는 정전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휘발유 정제시설 10만4000b/d 라인의 가동이 중단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3센트 상승한 1.5103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5/05/11>